

민주당 당권주자에게 듣는다

송영길 후보

“평화·경제·통합 이를 대표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다. 4선 국회의원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지냈으며 경제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송 후보는 19일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가 오후에 광주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세 후보 중 가장 젊은 후보답게 패기가 넘쳤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막힘 없이 제시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



키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할 것이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국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꿀 생각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 전 국민이 공평으로 혜택 받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현재 경선 판세는.

▲대세론이 바뀌었다. 여론조사에서 혼전 상황으로 나오는 것은 진전이 있다는 신호다. 송영길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저의 역동적이고 진심이 담긴 연설을 접하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 종교동계의 지지를 받은 이인제의 대세론을 ‘노무현’이 이길거라 누가 생각했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밑바닥의 민심은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 ‘제2의 노무현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호남 유세 이후 호남에서 제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고, 이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남 정치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소수 야당이다. 앞으로 정동영·박지원·전정배 등 호남의 굵은 야당 정치인을 상대할 민주당의 정치인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 당대표가 되면 21대 총선 때 호남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앞장서겠다. 또 호남을 잘 모르는 중앙정치인들이 호남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호남 인재 발굴과 육성을 책임지겠다.

-송 후보에게 호남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고향에서 태어나 광주대동고 3학년 때 5·18을 겪었다. 제 친구가 죽었다. 살아남은 자의 부채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인천광역시장이 돼서 인천시 대강당에서 5·18기념식을 하며 추도사를 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저에게 호남은 민주주의와 평화다.

-호남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 군사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다. 대세인 이인제를 굴복시키고 노무현을 선택했다. 애초 1강 2중에서 2강 1중 구도로 여론이 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 호남이 현명하게 선택해 주리라 믿는다. 송영길을 도와 달라.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민생 현안·당 소통 주력 당청 협력 한목소리 낼 것

연동형 비례제 협상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제2 노무현 바람’

호남서 전국으로 확산

과와 TSR로 연결하고, 남·북·러를 잇는 철도·가스·전력·통신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도 필요하다. 또 인천·개성·해주에 3각 경제무역자유지대를 설치, 인천·군산·목포를 잇는 해양물류와 대륙물류를 결합한 ‘환서해경제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못잡고 있다. 송 후보라면 잡을 수 있다.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기존 집값의 10%만 오른다면 자기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이미 5000여명 정도의 회원이 모집돼서 다음 달에 착공된다. 인천시장 때부터 5년 동안 준비해온 획기적 프로젝트다. 보통 우리 서민이 자기 소득의 25-30%를 주거비로 쓴다. 이걸 반으로 낮추면 15%포인트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완성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당 대표가 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연동형비례대표제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

다. 우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국도 평화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교 역량과 함께 한반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철학을 갖춘 후보다. 둘째,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종합 행정 능력을 갖춘 후보다. 인천시장 시절 하루 이차만 11억 원이던 부도위기 도시를 외자 유치 1위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광역단체 행정경험으로 문대통령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 셋째, 저는 56세다. 국회의원 평균 나이의 딱 중간으로,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호남 출신이다 보니 영남 출신 대통령과 함께 영·호남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이고,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만큼 친문, 비문을 넘어 계파와 세대, 지역을 통합할 후보다.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그동안 당의 존재감이 약했다. 민주당 129명의 훌륭한 국회의원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도록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민생현안에서 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현 당대표 체제에서는 소통 문제가 있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소속 의원들이 전화하면 밤 늦게라도 언제나 받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안 문제로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의논하겠다.

-송 후보가 생각하는 건전한 당청 관계는 어떤 것인가.

▲당청이 정기적으로 정국운영 협의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당청의 관계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내각과 민주당 국회의원 129명의 소통, 협력과 조율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다음에 당청의 협력과 조정과정을 통해 한 목소리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북방경제를 통한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묶는 H벨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찾아야 한다. 동해선·경원선을 뚫어 대륙

“73만 권리당원 표심 잡아라”

민주 전대 운명의 일주일

오늘부터 ARS 여론조사

관망표 많아 예의주시

호남 표심향배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세 당권 주자의 막판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일단 세 후보는 무엇보다 73만명에 달하는 전국 권리당원 표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권리당원 투표는 당장 20일부터 사흘간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중(40%)은 25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의원 투표(45%·1만4000여명)보다는 낮지만, 절대적으로 규모가 큰 데다 ‘관망표’가 많아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호남 권리당원의 표심 향배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호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호남지역 출향 권리당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권리당원들이 이 지역 출신인 송영길 후보 지지로 결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송 후보 측에서는 호남 권리당원들의 과반 이상 지지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세대교체를 매개로 호남 권리당원들의 지지세가 빠르게 결집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 권리당원 표심’이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대선을 전후해 이른바 ‘문팬’(문재인 대통령의 팬) 권리당원만 10만명 가까이 증가한 데다, 최근에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 온라인 당원이 급격히 늘었다. 세 후보가 전라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까지 경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킴

이’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친문 표심을 자극한 것도 이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빙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승부는 결국 대의원 투표에서 갈리게 된다. 나머지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0%,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5% 반영되는 데 불과해 결정적 변수는 되지 못할 전망이다. 대의원은 현재 1만4000여명으로 집계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위원장 등 중앙정치 세력과의 결합도가 높은 만큼 권리당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표표가 많다는 평가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율도 변수로 꼽힌다. 세 후보 측 모두 대의원 투표율은 70% 수준으로 1만명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권리당원 투표율을 높이고는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40%대 중·초반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나된 남과 북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젤라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아시안게임 참석 이총리 “내가 먼저 리룡남 북 부총리 손 잡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할 때 내가 먼저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카르타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전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했던 소감 등을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전날 개막식에 참석하기 직전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주선으로 리 부총리와 함께

10분 남짓 ‘3자 회동’을 했고, 개막식에서도 리 부총리와 나란히 앉아 관람했다.

이 총리는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할 때 관람객들이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 둘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더라. 내가 리 부총리의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총리는 셰이크 아흐마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의장이 개막연설에서 남북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하자, 다시 한 번 리 부총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

다.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한 것은 이번이 5번째이고, 남북단일팀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총리가 아시안게임에 참석할 것 또한 처음이다.

이 총리는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리 부총리와 귓속말도 하고 종종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NT One Tour (하나투어) featuring autumn travel packages. It includes a large central graphic with the text '추석여행' and '추석특별기 타고 무안공항에서 떠나요!' for September 21st to Houtaishan and September 22nd to Daman/Hanoi. Three smaller packages are listed: Hanoi/Halong Bay/Vietnam 5 days for 1,290,000 won, Daman/Zhushan/Yangliu 4 days for 1,499,000 won, and Houtaishan (North Sea) 5 days for 1,890,000 won. The ad also features the HNT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branch at 062)228-1199.